

## 비행 중 뒷문 활짝... 승객들 날아갈 뻔

승객을 태우고 시베리아 하늘을 비행하고 있던 항공기 뒷문이 열리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야쿠츠크 마간에서 이륙한 안토노프(AN)-26 항공기는 총 25명의 승객을 태우고 러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마가단을 향해 이륙했다.



▲ 비상착륙한 사고 비행기(왼쪽)와 비행 중 한 승객이 활영한 뒷문이 열려있는 모습. 사진=twitter(Lyla\_Iras)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갑자기 화물실을 신는 항공기의 뒷문이 열리면서 기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갑자가 기내 압력이 떨어지고 영하 41℃의 차운 시베리아 공기까지 불어 달치면서 수하물이 밖으로 훌쓸히 나가는 등 그야말로 재난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

“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러시아 항공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An-26은 노후기종으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An-26은 과거 소련 시절 개발되고 생산된 쌍발 터보프롭 수송기이다.

## 이상 고온에 눈 사라진 알프스

울겨울 유럽이 이례적인 이상 고온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다.

CNN은 5일 눈이 사라져버린 프랑스 알프스의 스키리조트인 르프라즈 드 리스-소멘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개했다.



▲ 크리스틴 해리슨이 활영한 알프스의 한 스키리조트의 5년 전(왼쪽)과 최근 모습. 사진=newshub.co.nz

공개된 사진은 지난 2018년 1월 많은 눈이 쌓여있는 일반적인 알프스 풍경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장소를 활영한 사진을 보면 눈이 거의 사라져버려 집과 나무가 아니면 같은 장소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사진을 활영한 크리스틴 해리슨은 “지난 20년 동안 이곳을 찾아 스キー를 뒀으며 항상 창밖으로 보이는 풍

경은 언제나 같았다.”면서 “지금은 슬로프에서 하루를 보내는 대신 발코니에 앉아 야생동물을 지켜보고 있다. 새들도 따뜻해진 날씨에 혼란스러운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은 기온이 치솟으며 겨울 아닌 겨울을 겪고 있다. 이상 고온 탓에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스키장들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스위스의 휴양지 아델보덴도 최근 역대 1월 최고치인 20°C를 기록했으며, 해발 2,000m 높이에서도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7500개 스키 슬로프 중 절반이 눈 대신 내린 비로 폐쇄된 상태다.

## 두 딸 양육권 얻기 위해 성별 바꾼 아빠



▲ 성별을 바뀐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살리나스 라모스. 사진=foxnews.com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에 살고 있는 살리나스 라모스(47)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그는 얼마전 아내와 헤어진 후,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두 딸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도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꾸었다. 그가 여성이 된 사연은 이렇다.

라모스는 양육권 분쟁 중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아이들 엄마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편견이 사법부에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하게 남자에 대한 차별이자 아빠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양육권 분쟁에서 아빠가 엄마를 이기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라모스는 자신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라모스는 아수아이의 주민등록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에콰도르에선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선택한 성별로 주민등록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라모스는 “소송에서 이긴다면 생물학적으론 남자지만 여자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Kyung Sook Yu, D.D.S

##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 크라운  
(PFM)  
\$500**
- 잇몸치료  
\$200 부터**
- 틀니  
\$1500**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